내달 개원 110주년 앞둔 광주기독병원 리모델링 완료

산뜻하고 쾌적…도심 속 '힐빙 병원' 재탄생





신 · 개축 공사를 마친 광주기독병원 현관.



사라진 언덕에 치유공원과 계단이 자리했다.

1905년 호남 최초의 현대식 병원으로 문 을 연 광주기독병원이 올해 개원 110주년 (11월20일)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고객 편의'를 모토로 병원 현관·로비동을 신축 하고, 전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특히 도심 속 치유공원을 조성해 힐링 공간으로 거듭 났다.

광주기독병원(병원장 박병란)은 개원 110주년 건축공사를 통해 언덕 위의 지형 을 없애고, 도로면에서 바로 병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문화도시에 걸맞은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광주기독병원은 환자들이 언덕길을 올 라가서 병원 현관에 들어가야 하는 불편 함을 해소하고,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건 축공사를 완공하고 지난 21일 준공식을

현관·로비 신축 등 환자편리 역점…은행·카페 편의시설도 제중원때부터 의료 사랑 역사 담은 '제중문화관' 개관 예정

1905년 11월20일 광주제중원으로 현대 의료를 지역에 도입한 광주기독병원은 사 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의 의료를 선도 해 온 대형 종합병원이자 의사 수련병원으 로서 위상을 다져왔다.

그러나 병원이 설립시 언덕에 위치한데 다 앞쪽에 도로가 생기면서, 병원이 도로 면에 비해 높게 자리해 도심미관을 떨어뜨 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병원과 도로가 옹벽으로 분리돼 현관 출입구까지 환자들이 언덕길을 오르거나 주차 후 육교 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110주년 신축공사는 '환자 편

의'를 역점에 두고 진행됐다. 우선 옹벽과 언덕을 완전히 헐어내어 도로면과 병원 지 면을 같게 해 기존의 도로(양림로, 백서로) 에서 곧바로 병원 현관과 로비로 진입하도 록 조치했다.

새로 신축된 로비에는 광주기독병원의 100년 의료와 광주의 선교에 관한 역사・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제중문화관' 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은행,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과 종합 안내센터, 진료의뢰센터, 원무창구를 배 치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통해 진료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로 혼잡스러웠던 1층 주차공간에는 아름다운 치유 정원을 조성 해 힐링과 웰빙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힐빙 공간'이 되게 했다.

더불어 병원 전 건물의 외벽은 문화도시 에 어울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 기 위한 현대적인 미관으로 완전 리모델링

박병란 광주기독병원장은 "공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참으며 마음을 합 해 격려해 주신 환우들과 시민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지난 110년간 지역의 성장 과 아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 었던 광주기독병원은 21세기에도 첨단 의 료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으로 지역민의 건 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김치타운 김치아카데미 '장 담그기' 수강생 모집

광주김치타운 김치아카데미는 오는 11 월24일부터 이틀간 간장, 된장, 고추장, 즙 장(집장), 막장 등을 담그는 방법을 교육하 는 '2015장 담그기'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전통식품의 제조기술을 전 승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특별과정으로, 강의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65호로 지정된 강진전통된장영 농법인 백정자 고문이 맡는다.

모집 인원은 20세 이상 일반인 20명이며, 선착순 접수한다. 오는 11월23일까지 광주 김치타운 김치아카데미에 전화(062-672-8447)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재료비와 실습비를 포함해 20만원이다.

광주김치타운 김치아카데미는 김치소 믈리에, 전통가양주제조, 천연발효식품 등 교육과정과 김치 담그기 체험을 실시하 /윤영기기자 penfoot@

내년 6월이면 광주 서방천이 사계절 방천과 연결된 신안교에 보내진다. 특히 갈수기에 맞춰 하상여과시설 설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치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건천(乾川)인 서방천에 정화된 광주천 하천수를 유지 서방천은 북구 문흥동 동광주나들목

광주서방천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내년 상반기 수질개선공사 마무리

용수로 공급해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수질을 향상시키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

정화된 광주천 물은 1일 1만2000t씩 서

인근에서 발원해 북구청과 전남대를 거 쳐 광주천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총 길이 5.8km중 4.6km가 콘크리트 복

개돼 하천이 메마르고 수질 오염으로 인 해 악취가 발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착공한 이 사업은 국비 등 108억원이 투입돼 송수관로(1.45km) 박남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사 와 옛 보훈회관 인근 광주천에 하상여 업이 완료되면 서방천 하류 구간의 수질

과시설(폭 25m, 길이 200m)을 설치한 이 개선되고 수심 15cm의 하천수가 사계 절 흐르게 돼 하천의 고유기능을 회복할 자갈과 모래 등 하상여과시설을 거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오는 30일까지 남광 메트로 갤러리 주역과 상무역에서 국립나주병원(병원장 윤보현)과 함 께 '지하철역 시·서·화전'을 연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 지역민과 함께하는 경로 위안잔치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최근 광산구 우산동 힐링 숲에서 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경로 위안잔치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시공사 임직원, 소리 모아 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등 봉사자 들이 참여해 지역의 어르신 500여명에 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이어서 소리 모아 봉사단이 민요, 전통가요, 품바, 난타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주민과 함 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이번 경로 위안잔치를 통해 각박해져 가는 사회에 경로 효친사상을 확산시키는 계 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내달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접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광주시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에 사용할 비료 종류, 공급 시기, 공급 업체 및 물 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마 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전자우 편(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

시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비

료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 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기 위해 올해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 정보 등록 농업경영체로 변경하고, 내년 에는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 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경영정보 등록과 변경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홈페이지에 신청서식 게재)를 작성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 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